

간편·쓸쓸... 없는 게 없는 '온라인 공매'

캠코 '온비드' 알뜰 재테크 인기
땅·집·차·순금·골착기·회원권
권리분석·명도 부담 등 없어
초보자·젊은층 입찰 참여 많아

#광주에 사는 50대 김경화(가명·여)씨는 매주 월요일 아침 '온비드'에서 부동산 물건 정보 검색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2년 전, 온비드에서 땅을 구입한 게 계기가 됐다. 퇴직하면 전원생활을 하고자 부동산을 찾던 중 원하던 평수·거리·가격 등이 적절한 국유 토지가 나왔다. 최저 입찰 가격에 7.68%를 올려 입찰에 참가했고, 낙찰됐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성공담을 지인들에게 알렸고, 지금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좋은 물건을 추천한다. 전두환 자택, 순금 100돈, 골착기, 벤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

라인 공매 서비스 '온비드'에서 인기를 끈 물건들이다. 온비드에는 부동산에서부터 자동차, 기계장비, 골프장회원권, TV, 컴퓨터, 명품시계 등 없는 게 없다. 가격대도 만원대에서부터 수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잘 뒤져보면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28일 캠코에 따르면 온비드 공매는 경매보다 쉬워 알뜰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세금채납 압류재산 매각, 국·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 이용기관 재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회사 등이 매각을 추진하는 재산은 권리분석이나 명도의 부담이 없어 초보자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 온비드 입찰 참가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9만명에 달했다. 관심이 높은 물건은 자동차와 부동산이다. 지난해 전체 물건 가운데 자동차·기계장비 비중이 43%를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 매각(29%)과 임대(18%), 물품(8%) 순이었다. 자산유형별로 경쟁률도 자동차·기계장비가 8.1대 1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매

각(5.8대1), 부동산 임대(2.7대 1), 물품(2.6대 1)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을 용도별로 보면 대지의 경쟁률이 3.26대 1로 가장 높고, 아파트의 경쟁률이 3.08대 1로 뒤를 따랐다. 가격 분포는 1억원 이하가 56%를 차지했고 이 중 1000만원 이하도 17%나 됐다. 소액으로 지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투리 국유지를 6000만원(감정가 1억1000만원)에 구입한 뒤 대지가격까지 총 3억원에 집을 지어,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온비드의 역대 최고 매각금액은 2014년 10조5500억원에 거래된 서울 삼성동 한 국전력 부지다. 최고 경쟁률 물건은 2018년 대전도시공사가 분양한 갑천3블록 트 리플시티 분양아파트 잔여세대로, 3세대에 2만7715명이 몰려 92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경쟁률도 높다. 올해 기아차 중형화물 봉고III(4륜구동, 2902cc) 공매에는 168명이 몰렸다. 낙찰가는 870만원이

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관용차의 경우 운행 거리에 비해 관리 상태가 좋아 인기가 높다. 온비드는 대부분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는데, 소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도 관심이 높다. 온비드 앱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물건 검색은 물론 입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온비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더욱 이용이 늘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스마트 온비드 회원수는 8만4627명으로 이 가운데 20대 이하 회원 비중은 17%다. 30대, 40대는 각각 30%, 32% 비중을 차지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부동산 매각 외에 임대 물건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연간 임대료 1000만원 이하인 물건은 지난해 61%로, 적은 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공매를 통한 임대는 관리금이 없고, 임대기간이 보장돼 임대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자에게 유리하다. /박정훈 기자 jwpark@kwangju.co.kr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동'

보험료를 검증 의뢰...내년 초 3~5% 수준 인상 예상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험료를 검증 의뢰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전 보험개발원을 통해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를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전달한다. 이어 보험사는 2~3주 내 준비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하므로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도 이날 요율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빅4'의 손해율이 지난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90% 안팎이다. 적정 손해율이 80% 정도이므로 대형 손보사도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기록

중인 셈이다. 이는 연초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 대형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한방 평균진료비가 1인당 95만원으로 양방(35만원)의 2.7배 수준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비 등도 늘었다. 올 1월 삼성화재(3.0%), DB손보(3.5%), 현대해상(3.9%), KB손보(3.5%) 등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보험료를 3~4% 올렸으나 업계는 인상 요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대법원 판결을 약관에 반영하면서 6월에도 보험료를 1%가량 재차 올리는 했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만 보험료가 5%가량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재차 그 정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보험료가 높다고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다. /연합뉴스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펀드 4660개...비중 첫 30% 돌파

펀드 시장에서 해외투자펀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해외투자펀드 수는 4660개로 전체 펀드의 30.3%에 달했다. 해외투자펀드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해외투자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아 해외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이어지고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면서 해외투자펀드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펀드 내 해외투자펀드 비중은 2015년 말 19.4%에서 2016년 말 20.1%, 2017년 말 23.9%, 지난해 말 28.0%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 들어 마침내 30% 선을 돌파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체 펀드가 1001개 늘었는데 이 중 해외투자펀드가 640개에 달했다. 이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달 말 현재 해외투자펀드 설정액은 174조8696억원으로 전체 펀드 설정액의 27.0% 수준이었다. 해외투자펀드 4660개 중 사모펀드가 71.2%인 3320개였고, 공모펀드는 1340개로 28.8%였다. 설정액은 사모펀드가 136조3963억원으로 78.0%, 공모펀드가 38조4734억원으로 22.0%였다. /연합뉴스



송중욱 광주은행장(오른쪽 3번째)이 28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FF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식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금융위·특허청과 지역기업 지식재산 금융지원 MOU

광주은행과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금융 지원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IP 금융은 우수한 특허 기술은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광주은행,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IP 금융의 지방 확산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IP 금융 지원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다. 협약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송중욱 광주은행장, 박원준 특허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IP 담보 대출상품은 국책은행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만이 취급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866억원, 884억원 수준이던 신규 IP 담보대출은 올해 1~10월에

2360억원으로 늘어났다. IP 금융 지원은 그동안 수도권 기업에 편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IP 보증·담보·투자금액 가운데 68%가 서울·경기지역에 공급됐다. 협약식에 이어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IP 금융의 현황 및 정책 방향, IP 담보대출 우수사례, 한국형 일괄 담보제 도입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0월 기업대출 금리 역대 최저

기준금리 인하 영향...가계대출 금리도 하락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9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 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28%로, 한 달 전보다 0.1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연 3.13%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3.39%로 0.11%포인트 떨어져 1996년 이후 최저치다. 대기업 대출금리 하락은 대출 비중이 큰 단기물의 지표금리가 하락한 데다 전월 이뤄진 고금리 대출의 취급 효과가 사라진 영향을 받았다. 단기 지표금리인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연 1.50%→1.25%)의 영향을 받아 9월 연 1.54%에서 10월 연 1.46%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경우 일부 시중은행이 저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펼친 게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연 3.01%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50%로 역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장기 시장금리가 10월 들어 상승했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되면서 평균 대출금리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로 많이 쓰이는 5년 만기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금리는 9월 연 1.54%에서 10월 연 1.6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집단대출 금리의 경우 전월 실행된 고금리 중도금 대출의 취급 효과가 소멸하면서 9월 연 2.88%에서 10월 연 2.75%로 0.13%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